

435만권
BEST SELLER
2006~2019

2021 수능 시험 대비

리얼 오리지널 전국연합 모의고사

REAL · ORIGINAL

3
개
년

고3 국어 [총 18회] 하루 80분 · 18회 완성

[수능+모의평가+전국연합] 3개년 기출

3·4·6·7·9·10·수능×3개년=18회

- ✓ 2018~2020학년도 3개년 수능·모평·전국연합 수능 기출
- ✓ 정답의 근거가 되는 명쾌한 해설과 자세한 [어휘 풀이]
- ✓ 매력적인 오답 BEST5 분석·OMR 체크 카드·등급 컷 수록

별권 부록
문법 총정리+문제
핸드북 제공



13,000원

수능 모의고사 전문 출판
입시플라이

2021 수능 시험 대비

리 IPSIFLY 얼
오리지널
REAL • ORIGINAL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3·국어 **3개년**

차례

01회	2019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1쪽
02회	2018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7쪽
03회	2017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33쪽
04회	2018	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49쪽
05회	2017	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65쪽
06회	2020	학년도	6월	수능시험 모의평가	081쪽
07회	2019	학년도	6월	수능시험 모의평가	097쪽
08회	2018	학년도	6월	수능시험 모의평가	113쪽
09회	2018	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29쪽
10회	2017	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45쪽
11회	2020	학년도	9월	수능시험 모의평가	161쪽
12회	2019	학년도	9월	수능시험 모의평가	177쪽
13회	2018	학년도	9월	수능시험 모의평가	193쪽
14회	2018	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209쪽
15회	2017	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225쪽
16회	2020	학년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241쪽
17회	2019	학년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257쪽
18회	2018	학년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273쪽

•정답과 해설

책속의 책



[문법 총정리+문제]

- 문법 핵심 개념 총정리 + 끝내기 문제
- 휴대가 가능한 핸드북 형태

이 책의 구성과 특징

Structure & Features

2021 리얼 오리지널 시리즈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학습할 수 있는 수능 모의고사와 똑같은 형태의 기출 문제집입니다.

01 실제 수능 시험지와 똑같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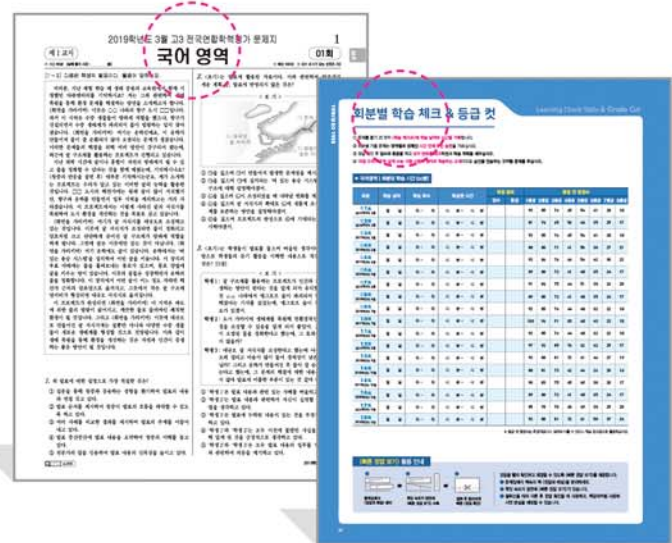
전국연합 3개년 모의고사는 총 18회분의 수능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실전과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① 실제와 똑같은 시험지 형태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 시험지와 동일한 형태의 문제지를 수록하여 실전 느낌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② 회분별 학습 체크 표 & 학습 시간 체크

문제를 풀기 전 먼저 학습 체크 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시고, 과목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02 시험과 동일한 OMR 체크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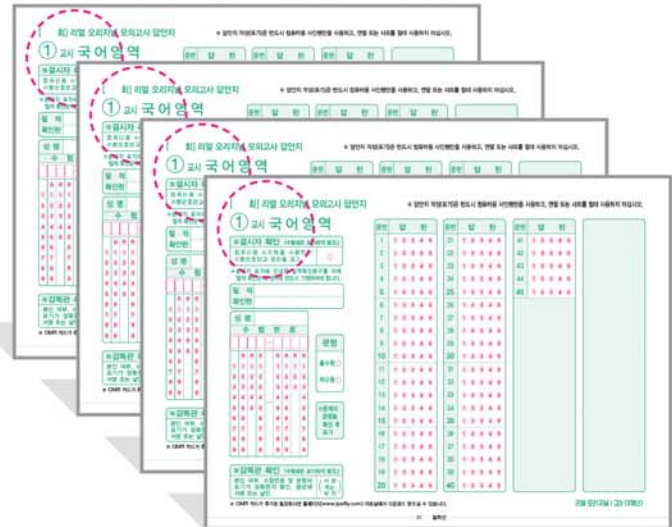
OMR 체크 카드는 <총 16회분>이 부록 형태로 제공되며, 수능 기출 모의고사 문제지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 실전과 동일한 OMR 카드

리얼 오리지널 시리즈의 OMR 카드는 실제 수능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므로 실전과 비슷한 느낌으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② 추가 OMR 카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혹시 답을 밀려 썼거나 추가로 OMR 카드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ipsify.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빠른 정답 & 회분별 등급 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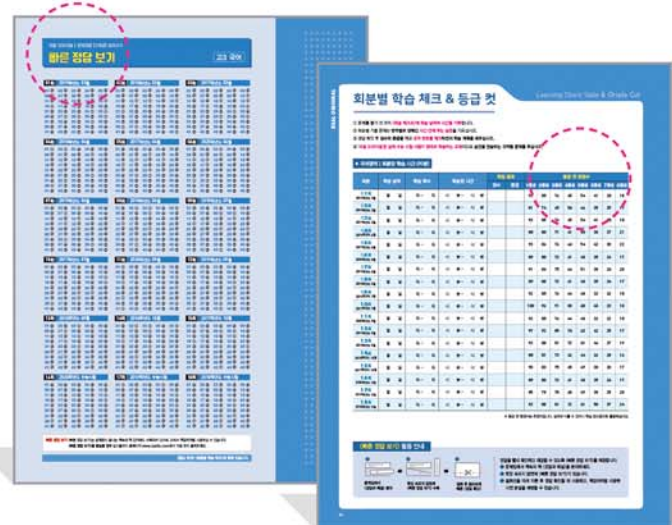
문제를 푼 후 채점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자신의 등급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른 정답과 등급 컷을 제공합니다.

① 빠른 정답 체크 표

리얼 오리지널 시리즈는 책 속의 책 간지를 오려서 책갈피로 사용이 가능한 빠른 정답 체크 표를 제공합니다.

② 전 회분 회차별 등급 컷

과목별로 모의고사 등급 컷을 제공하므로 문제를 풀고 바로 자신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학습 체크표에 수록)



04 단계적으로 강화된 자세한 해설

빠른 정답, 답지의 선택률, 베스트 오답, 매력적인 오답 분석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① 답지의 선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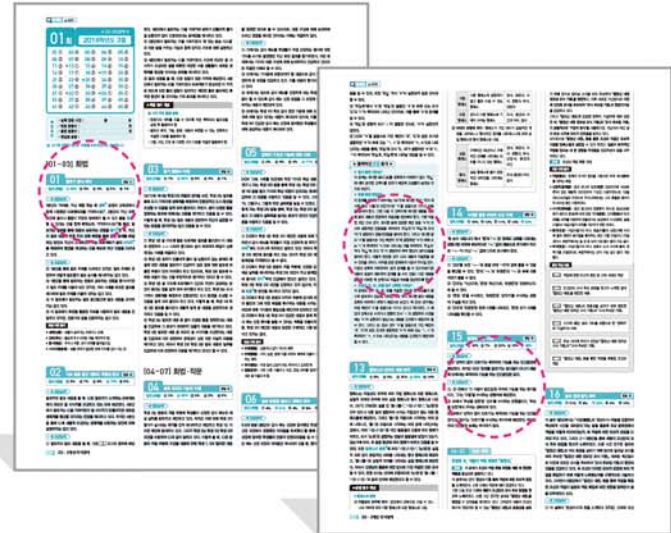
문항별 답지의 선택률을 제공하여 선택률은 어떤 답을 많이 선택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② BEST 5 오답 표기

각 회분별 BEST 5에 해당하는 오답의 문항을 표기하여 가장 어려운 난도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매력적인 오답 분석

오답 BEST 5에 해당하는 문제를 ① 많이 틀린 이유? ② 오답률이 가장 높은 답지를 선택한 이유? ③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 자세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05 동급 최강의 풍부하고 명쾌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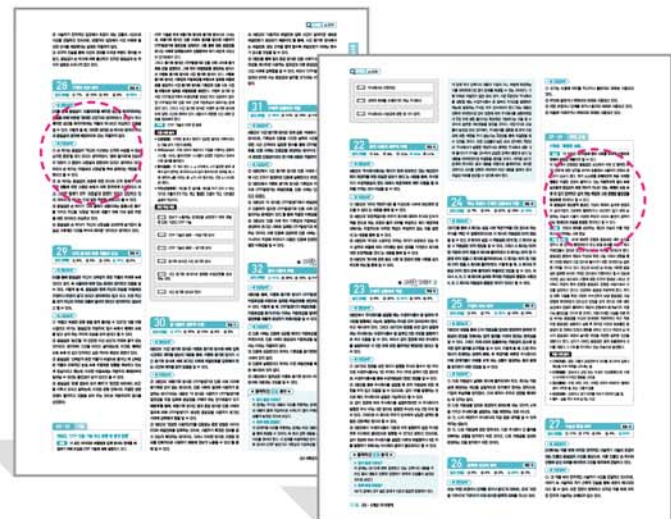
리얼 오리지널 시리즈는 연도별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 중 가장 풍부하고 명쾌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 자세하고 명쾌한 전문가 해설

문제 풀이의 필수 개념과 어휘 풀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수능 집필 전문 선생님들이 해설을 집약하였으며, 명쾌한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답답함 없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왜 오답일까?, 왜 정답일까?

왜, 정답인지? 오답인지? 눈높이에 맞는 자세한 해설과 헷갈리는 개념까지 잡아 주고 문제 풀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06 별권 부록 [문법 총정리+문제] 핸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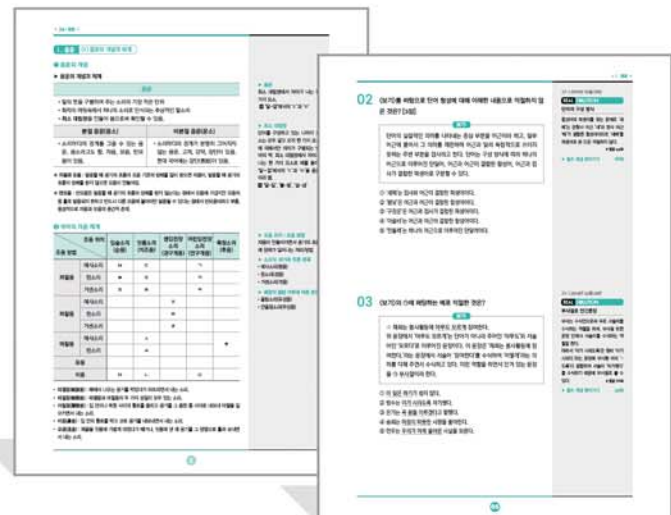
언어와 매체 중 언어에 해당하는 문법 총정리와 끝내기 문제를 수록한 핸드북을 부록으로 제공합니다.

① 문법 개념 총정리와 문제편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문제편까지 수록해 새로운 수능과 학교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② 휴대용 핸드북 형태로 제공

문법 총정리와 문제편은 휴대할 수 있는 핸드북 형태로 제공되며 문제편의 해설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 교시 국어영역

※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0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확인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 적

확인란

성 명

수험번호

—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문형

출수형 0

찍수형 0

※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OMR 카드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ipsifly.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얼 오리지널 I 고3 (3개년)

절취선

① 교시 국어영역

※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0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확인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 적

확인란

성 명

수험번호

—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문형

출수형 0

찍수형 0

※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06 ※ OMR 카드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ipsifly.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얼 오리지널 I 고3 (3개년)

1교시 국어영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0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확인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 적
확인란

성 명																																																																																																					
수험번호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 </tr> <tr> <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 </tr> <tr> <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 </tr> <tr> <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 </tr> <tr> <td>5</td><td>5</td><td>5</td><td>5</td><td>5</td><td>5</td><td>5</td><td>5</td><td>5</td><td>5</td> </tr> <tr> <td>6</td><td>6</td><td>6</td><td>6</td><td>6</td><td>6</td><td>6</td><td>6</td><td>6</td><td>6</td> </tr> <tr> <td>7</td><td>7</td><td>7</td><td>7</td><td>7</td><td>7</td><td>7</td><td>7</td><td>7</td><td>7</td> </tr> <tr> <td>8</td><td>8</td><td>8</td><td>8</td><td>8</td><td>8</td><td>8</td><td>8</td><td>8</td><td>8</td> </tr> <tr> <td>9</td><td>9</td><td>9</td><td>9</td><td>9</td><td>9</td><td>9</td><td>9</td><td>9</td><td>9</td> </tr> </table>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문형

홀수형 0

짝수형 0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OMR 카드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ipsify.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얼 오리지널 I 고3 (3학년)

절취선

1교시 국어영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0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확인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 적
확인란

성 명																																																																																																					
수험번호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 </tr> <tr> <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 </tr> <tr> <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 </tr> <tr> <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 </tr> <tr> <td>5</td><td>5</td><td>5</td><td>5</td><td>5</td><td>5</td><td>5</td><td>5</td><td>5</td><td>5</td> </tr> <tr> <td>6</td><td>6</td><td>6</td><td>6</td><td>6</td><td>6</td><td>6</td><td>6</td><td>6</td><td>6</td> </tr> <tr> <td>7</td><td>7</td><td>7</td><td>7</td><td>7</td><td>7</td><td>7</td><td>7</td><td>7</td><td>7</td> </tr> <tr> <td>8</td><td>8</td><td>8</td><td>8</td><td>8</td><td>8</td><td>8</td><td>8</td><td>8</td><td>8</td> </tr> <tr> <td>9</td><td>9</td><td>9</td><td>9</td><td>9</td><td>9</td><td>9</td><td>9</td><td>9</td><td>9</td> </tr> </table>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문형

홀수형 0

짝수형 0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OMR 카드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ipsify.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얼 오리지널 I 고3 (3학년) 05

① 교시 국어영역

※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0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확인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 적

확인란

성 명

수험번호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문형

출수형 0

찍수형 0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OMR 카드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ipsifly.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얼 오리지널 I 고3 (3개년)

절취선

① 교시 국어영역

※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0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확인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 적

확인란

성 명

수험번호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문형

출수형 0

찍수형 0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것.)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08 ※ OMR 카드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ipsifly.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얼 오리지널 I 고3 (3개년)

회분별 학습 체크 & 등급 컷

Learning Check Table & Grade Cut

- ① 문제를 풀기 전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 ② 회분별 기출 문제는 영역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 ③ 정답 확인 후 점수와 등급을 적고 성적 변화를 체크하면서 학습 계획을 세우십시오.
- ④ '리얼 오리지널'은 실제 수능 시험 시험지 형태로 학습하는 교재이므로 실전을 연습하는 것처럼 문제를 푸십시오.

● 국어영역 | 회분당 학습 시간 (80분)

회분	학습 날짜	학습 쪽수	학습한 시간	채점 결과		등급 컷 원점수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01회 2019학년도 3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82	73	63	52	42	33	24	19
02회 2018학년도 3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81	74	65	56	46	35	25	17
03회 2017학년도 3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93	85	76	65	54	41	28	18
04회 2018학년도 4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88	80	71	61	50	38	27	21
05회 2017학년도 4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93	86	76	66	54	42	30	22
06회 2020학년도 6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87	80	72	62	50	37	26	20
07회 2019학년도 6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91	84	75	64	51	38	26	20
08회 2018학년도 6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89	80	72	61	48	35	24	17
09회 2018학년도 7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92	85	76	64	48	32	22	18
10회 2017학년도 7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100	96	91	83	68	43	23	18
11회 2020학년도 9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90	83	76	65	52	36	23	18
12회 2019학년도 9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97	92	85	76	62	42	25	17
13회 2018학년도 9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93	88	81	72	61	46	27	19
14회 2018학년도 10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88	81	73	62	44	26	20	16
15회 2017학년도 10월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90	83	75	65	49	30	20	17
16회 2020학년도 수능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91	84	76	64	54	43	26	18
17회 2019학년도 수능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84	78	70	61	51	41	31	22
18회 2018학년도 수능	월 일	쪽 ~ 쪽	시 분 ~ 시 분			94	89	82	74	62	48	34	24

※ 등급 컷 원점수는 추정치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학습 참고용으로 활용하십시오.

<빠른 정답 보기> 활용 안내



정답을 빨리 확인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빠른 정답 보기>를 제공합니다.

- ① 문제집에서 책속의 책 <정답과 해설>을 분리하세요.
- ② 뒷장 속표지 앞면에 <빠른 정답 보기>가 있습니다.
- ③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 정답 확인할 때 사용하고, 책갈피처럼 사용하면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지난 체험 학습 때 생태 공원의 교육관에서 함께 시청했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죠? 저는 그와 관련하여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은 ○○ 나라의 항구 도시 □□입니다. 과거 이 지역은 수중 생물들이 방파제 역할을 했으나, 항구가 건설되면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어 물이 범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운하인데요, 이 운하가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오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 왔는데, 최근에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학 시간에 굴이나 홍합이 자연의 방파제가 될 수 있고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대부분 기억하시는군요. 제가 소개하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굴의 능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 도시의 해안가에는 원래 굴이 많이 서식했지만, 항구와 운하를 만들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굴의 서식지를 복원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굴 서식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굴 서식지가 조성되면 물이 정화되고 암초처럼 크고 단단하게 굳어진 굴 구조체가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굴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운하에도 굴이 있습니다. 운하에서는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을 설치하여 어린 굴을 키웁니다. 이 장치의 부표 아래에는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있으며, 통로 양옆에 굴을 키우는 방이 있습니다. 이곳의 굴들은 성장하면서 운하의 물을 정화합니다. 이 장치에서 어린 굴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해안가 근처의 암초망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작은 굴 구조체 덩어리가 형성되면 대규모 서식지로 옮겨집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화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파도에 의한 물의 범람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에 대규모로 만들어진 굴 서식지에는 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 ② 발표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여러 사례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며 발표의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④ 발표 중간중간에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 <보기>는 발표에 활용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세운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짚으며 ㉠이 만들어져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해야겠어.
- ② ㉠을 짚으며 ㉠에 설치되는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 ③ ㉡을 짚으며 ㉡이 조성되었을 때 나타날 변화를 제시해야겠어.
- ④ ㉡을 짚으며 굴 서식지의 확대로 ㉡에 새롭게 조성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을 설명해야겠어.
- ⑤ ㉢을 짚으며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에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해야겠어.

3. <보기>는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 1: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얼마 전 △△ 나라에서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어 해일이 심해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맹그로브 숲이 복원될 필요가 있겠어.

학생 2: 도시 가까이에 생태계를 복원해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굴이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학생 3: 대규모 굴 서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낮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운하가 만들어진 후 물이 잘 순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발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사례를 떠올리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7] (가)는 학교 신문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학생 1: ㉠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오늘은 기사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 학생 2: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가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본문의 처음 부분에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학생들이 기사 내용에 주목할 거야.
- 학생 3: 그러면 학생들이 단순히 급식 메뉴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행사의 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므로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사가 실시된다는 취지부터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 [A]
- 학생 1: 좋아. 그렇게 하면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된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 학생 2: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 ㉡ 그럼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각한 후,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
- 학생 1, 3: 응, 그래.
- 학생 1: ㉢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
- 학생 3: 좋아, 그런데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 학생 2: 그 내용도 필요한데 너무 길게 쓰면 기사가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쓰면 좋겠어. 그리고 ㉣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 그러면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 학생 1, 3: 그게 좋겠다.
- 학생 3: 내가 취재해 보니,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
- 학생 1: ㉤ 맞아, 전에 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 알고 있는데, 그 기준들과 학생들의 선호를 모두 고려하여 메뉴를 선정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을 거야.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자.
- 학생 2: 그래, 좋아.
- 학생 1: 그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할까?
- 학생 2: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결을 촉구하면 어떨까?
- 학생 3: 그런 내용은 기사문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좋겠어. [B]
- 학생 2: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다. 나도 동의할게.
- 학생 1: 응, 그래. 그리고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향후 계획도 함께 언급하면 어때?
- 학생 2, 3: 좋아.
- 학생 1: 그럼, 이제 기사문을 작성해 보자.

(나)

[표제]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급식 메뉴

[부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 실시돼

- [전문] 4월 3일(수), 3학년 7반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다.
- [본문]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여 환경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1달에 1번씩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한다. 다음 달 급식 메뉴는 3학년 7반 학생들이 선정했다. 메뉴로는 흑미밥, 대패 삼겹살 구이, 상추쌈, 명이 나물, 된장국, 구슬 아이스크림이 선정되었으며, 4월 3일(수) 급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들은 매월 잔반을 가장 적게 배출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선정된다.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3학년 7반 학생들은 먼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 식단표의 열량 정보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구해 급식 메뉴를 결정했다. ㉠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메뉴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제공된 후 학생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현재 매월 1회인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므로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하며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② ㉡: 기사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드러난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③ ㉢: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기사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④ ㉣: 기사문의 내용이 독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의 서술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⑤ ㉤: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다른 학생이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발화이다.

5.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절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덧붙이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이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도하고자 하는 행사의 취지가 드러나도록 표제나 부제를 작성해야겠어. ㉠
-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행사의 효과를 부각해야겠어. ㉡
-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과 관련지어 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
-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
- 급식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려해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어. ...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나)를 작성한 후, 학생들이 되고 과정에서 나는 대화이다. 이를 참고하여 ㉦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학생 1: 기사문의 초고를 살펴다 보니, 회의에서 기사문에 포함하기로 했던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 학생 2: 그래, 맞아. 글의 맥락에 맞게,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 ①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 ②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선정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과 학생 선호를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선정 메뉴에 대한 불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③ 이 과정에 참여한 ○○○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 위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다 보니 학교 급식 단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메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 ④ 이 과정에 참여한 ○○○은, 영양사 선생님께서 평소 학생들의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선정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며 그 노고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⑤ 이 과정에 참여한 ○○○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은 고 열량으로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메뉴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했다.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나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 (중략) ...
 ㉡ 최근 기술의 발달로 드론이 더 작고 가벼워짐에 따라 주택가, 사무실 등에서 비행이 가능해져 비행 중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법학자들은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이 드론에 의해 침해되는 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중략) ...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이 있다. 드론 산업 관계자들은 사전 규제 방식을 택한 상태에서 ㉤ 드론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의 수집·활용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기술 전문 잡지 『○○』 -

(다) 학생의 초고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사전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대부분의 경우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전 규제 방식의 유지에 찬성한다.

드론은 고성능 카메라나 통신 장비 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드론에서 수집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전송하는 중에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드론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전 규제 방식이 유지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드론은 인명 구조, 시설물 점검 등의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의 민간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규제 방법을 도입하면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게 만들어, 사생활 침해는 더욱 심해지고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훼손, 가공 등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증가할 것이다.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제

약이 적기 때문에 드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드론 기술과 산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산업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면 정보의 활용이 용이해져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명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도록 하고 있고, 개인 정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때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 ② ㉡을 고려해,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용이한 드론의 특성을 언급한다.
- ③ ㉢을 고려해,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원리와 한계를 설명한다.
- ④ ㉣을 고려해,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한다.
- ⑤ ㉣을 고려해, 사후 규제 방식의 도입으로 드론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구체화하여,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 ② ㉡를 토대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 ③ ㉢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개인의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④ ㉣에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의 침해를 예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했다.
- ⑤ ㉣를 참고하여,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여러 나라에서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한 예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위조 등으로 정보 주체에게 신체나 재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액의 3~5배 정도를 배상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개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① 개인의 동의를 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②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다.
- ③ 드론의 활용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되 개인 정보의 침해 종류에 따라 손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 ④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규제를 완화하면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위조 등으로 정보 주체에게 일어나는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 ⑤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방식을 절충해서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개인 정보의 악용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ㄱ, ㄷ, ㅂ'으로 교체되고, ㉡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 이렇게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ㄷ, ㅌ'이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용언 어간 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다. ㉣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과 'ㄱ, ㄷ, ㅈ'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데 이를 통해 용언 어간 말음 'ㅎ'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연음과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 국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는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 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똥(돌)', '나라(나라)'와 같이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 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나라히'와 같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ㅎ'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체언이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ㅁ'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아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 구별되지 않았다.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자리에 쓰인 사례를 검토해야 체언 말음 'ㅎ'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

11.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한뿔[한목]'을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② '놓기[노키]'를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③ '끓지[끓치]'를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④ '값할[가팔]'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⑤ '맞힌[마친]'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12. [A]를 참조하여 <보기>의 ㉠ ~ ㉣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습 목표]
중세 국어 자료를 통해 체언 '하늬'에 대해 탐구한다.

[중세 국어 자료]

- ㉠ 하늬히 므스믈 뉘우시니 (하늬히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
- ㉡ 하늬 光明中에 드러 (하늬의 광명 가운데에 들어)
- ㉢ 하늬 섬기습듯 흐야 (하늬 섬기듯 하여)
- ㉣ 하늬토 뉘며 (하늬도 움직이며)
- ㉤ 하늬와 싸과를 니르니라 (하늬와 땅을 이르니라)

- ① ㉠에서는 연음되어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지만, ㉣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는 'ㅎ'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 ③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없다.
- ④ ㉡와 ㉢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서로 다른 형태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와 ㉤에서 체언에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토', '과'가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13.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 ㉢, ㉣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자료]

-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
-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
-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

- ①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②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 ③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④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14. 사전 자료의 일부인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쓰임을 탐구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ㄴ- 「어미」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ㄹ- 「어미」
①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이것은 털실로 짠 옷이다.
②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누나는 유명한 성악가이다.

[학습지]
각 질문에 대해 '예'는 ○, '아니요'는 ×로 표시하십시오.

질문	-ㄴ-	-ㄹ-		
		①	②	
○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어미 '-(으)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어간에 붙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가?	×	○	○	...㉣
○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	×	○	...㉡
○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를 추가할 수 있는가?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다.
㉢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 ① ㉠은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한 개 있다.
- ② ㉡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은 ㉠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와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월일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역법의 ㉠ 운용과 역서의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었고 그곳의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되었다. 『서경(書經)』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라는 뜻의 관상수시(觀象授時)는 유교 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므로 고려 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야 했다.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력은 정확성이 부족하여 고려 말에는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도입했다. 수시력은 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곧 교식을 추보*할 때는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 이 상황은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마침내 수시력에 ㉡ 통달했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세종 12년,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보할 때에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이때의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입성이란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 등을 실어 놓은 계산표이다.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하려 했다.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추보하기 위해 한양의 위도 등을 알아내도록 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세종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다. ‘칠정’이란 태양, 달, 다섯 행성의 운행을 가리키고, ‘산’이란 계산했다는 뜻이다. 『칠정산 내편』은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교식과 천체 관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법이라 할 수 있다.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 정묘년(1447년)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하게 했다.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하자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 정비했다.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4년에 편찬된 『교식 추보법 가령』이다. 이 책은 정묘년(1447년) 8월의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한 것이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계산식을 약간 달리했기 때문에 교식 추보 시각은 서로 달랐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시각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여 조선 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 즈음에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영,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 했다. ‘영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다. 그러므로 영에서의 값인 ‘영차’는 양

의 값이고,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다.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인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는 그 반대이다. ㉦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뒤처지면 ‘지차’라 했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를 삭(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를 망(望)이라 한다.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될 때의 시각이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 모두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했다. 이를 가감차 방식이라 한다.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항 값으로 나누어 구했다.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고, 음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서 빼는 감차로 삼았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속도항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교식 추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칠정산 내편』이 편찬된 지 200여 년 뒤, 일본을 왕래하던 조선 통신사 사신 박안기는 조선의 역법을 일본에 전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역법 『정향력』이 완성되었다. 동아시아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칠정산 내편』, 『정향력』 등은 자국의 고유한 역법을 ㉩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추보: 천체의 운행을 관측함.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상수시의 개념을 소개하고 고려와 조선이 그것을 어떻게 변용하여 역법 제작에 응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선의 역법 발달 과정을 언급하고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천문과 역법의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와 그것이 끼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조선에서 교식 추보 방법이 발달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교식 추보가 중국 천문학 발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조선 역법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당대에 관측한 값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2021 수능 시험 대비

리 IPSIFLY 얼
오리지널
REAL ORIGINAL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3·국어 3개년

정답과 해설

Contents

차례

03월	01회	2019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2쪽
	02회	2018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0쪽
	03회	2017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9쪽
04월	04회	2018 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28쪽
	05회	2017 학년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37쪽
06월	06회	2020 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044쪽
	07회	2019 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053쪽
	08회	2018 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061쪽
07월	09회	2018 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71쪽
	10회	2017 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79쪽
09월	11회	2020 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087쪽
	12회	2019 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096쪽
	13회	2018 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104쪽
10월	14회	2018 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13쪽
	15회	2017 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21쪽
수능	16회	2020 학년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129쪽
	17회	2019 학년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138쪽
	18회	2018 학년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146쪽



※ 수록된 답지 선택률(정답률)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난도와 매력적인 오답을 파악하는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모의고사 전문 출판
i영입시플라이

01 회

고3 국어영역

2019학년도 3월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④
06 ②	07 ⑤	08 ③	09 ④	10 ②
11 ②	★12 ①	13 ④	14 ⑤	15 ⑤
16 ③	17 ①	18 ②	★19 ③	20 ③
21 ②	22 ④	★23 ③	24 ⑤	25 ③
26 ④	27 ⑤	28 ⑤	29 ④	30 ①
31 ①	★32 ①	33 ③	★34 ①	35 ①
36 ⑤	37 ②	38 ④	39 ⑤	40 ②
41 ④	42 ①	43 ③	44 ③	45 ⑤

채점 결과	• 실제 걸린 시간 :	분	초
	• 맞은 문항수 :		개
	• 틀린 문항수 :		개
	• 헛갈린 문항 :		

★ 표기된 문항은 BEST 오답률 5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01~03] 화법

01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89% ② 2% ③ 3% ④ 5% ⑤ 1%

• 왜 정답일까?

1문단의 '여러분, 지난 체험 학습 때 생태* 공원의 교육관에서 함께 시청했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죠?', 2문단의 '지난 과학 시간에 굴이나 홍합이 자연의 방파제가 될 수 있고 물을 정화*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를 통해, 발표자는 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한 후, 자신의 발표 내용과 연결 지어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자신이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굴의 서식지*를 복원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왜 오답일까?

- ② 1문단을 통해 발표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발표할지 발표 순서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 ③ 1문단을 통해 발표자는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시키면서 발표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지만, 여러 사례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며 발표 주제를 이끌어 내지는 않고 있다.
- ④ 이 발표에서 발표자는 발표 중간중간에 발표 내용을 요약하지는 않고 있다.
- ⑤ 이 발표에서 화면을 활용한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해설 어휘 풀이

- * 생태(生態) :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
- * 정화(淨化) :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함.
- * 환기(喚起) :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 * 서식지(棲息地) :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곳.

02

자료 활용 방안 계획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5% ② 7% ③ 8% ④ 74% ⑤ 6%

• 왜 정답일까?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볼 때, ㉠은 발표자가 소개하는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굴 서식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에 해당한다. 4문단에서 발표자는 ㉡을 가리키면서 굴 서식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4문단을 통해 ㉢에 새롭게 조성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볼 때, ㉠은 □□ 도시의 운하에 해당

- 한다. 1문단에서 발표자는 ㉠을 가리키며 운하가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오염되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발표자는 ㉠을 가리키면서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의 어린 굴을 키우는 기능과 함께 장치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4문단에서 발표자는 ㉡을 가리키면서, 이곳에 대규모 굴 서식지가 조성되면 굴을 비롯한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을 볼 때, ㉢은 범람이 잦은 지역에 해당한다. 4문단에서 발표자는 ㉡을 가리키면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 지역은 파도에 의한 물의 범람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화법 필수 개념

■ 시각 자료 활용 방법

- 청중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작문 맥락과의 필요성을 살핀 후 활용해야 함.
- 발표의 목적, 기능, 분량, 내용과 부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적절한 자료를 활용해야 함.
- 그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함.

03

듣기 활동의 이해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1% ② 89% ③ 6% ④ 3% ⑤ 1%

• 왜 정답일까?

<보기>에 제시된 학생 2의 떠올린 생각을 보면, 학생 2는 발표를 통해 도시 가까이에 생태계를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하면서, 굴이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학생 1은 굴 구조제 활용 프로젝트 발표를 들으면서 이 내용과 관련하여 △△ 나라의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어 해일이 심해졌다는 사례를 떠올리고 있다.
- ③ 학생 3은 운하가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내용을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발표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쉬웠다 하고 있으므로, 학생 3은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학생 1은 굴 구조제 프로젝트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 하고 있고, 학생 2는 도시 가까이에 생태계를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학생 2는 발표한 내용 중 굴이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 3은 발표한 내용 중 대규모 굴 서식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경제성이 낮은 것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4~07] 화법·작문

04

발화 의미와 기능의 이해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2% ② 85% ③ 2% ④ 5% ⑤ 6%

• 왜 정답일까?

학생 2는 본문의 처음 부분에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 3이 행사가 실시되는 취지를 먼저 제시하자고 제안하고 학생 1도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자 학생 2는 학생 1과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은 본문의 처음 부분에 구성될 내용에 대해 학생 1, 3과 협의한 내용

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드러난 쟁점을 제시한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일까?

- ① ㉠에서는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던 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사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자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라 할 수 있다.
- ③ ㉢에서는 기사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된 과정을 언급하고 있고, 이를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앞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다.
- ⑤ ㉤에서는 학생 1이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하여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 3이 언급한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5

담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2% ② 4% ③ 2% ④ 71% ⑤ 21%

• 왜 정답일까?

[A]의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라는 학생 2의 말을 통해 학생 2는 학생 3의 제안과 학생 1의 말을 듣고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는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의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다. 나도 동의할게.'라는 학생 2의 말을 통해,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좋아.'라고 하면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된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도 드러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1은 학생 3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학생 3의 제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A]에서 학생 3은 본문의 처음 부분에,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제시하자는 학생 2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언급하며 행사의 취지*부터 언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과 절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 ③ [B]에서 학생 3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그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쓰자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기사문의 통일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 ⑤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언급한 내용과 함께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획을 덧붙이자고 하였을 뿐,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덧붙이고 있지는 않다.

해설 어휘 풀이

- * 표제(標題) : 신문이나 잡지 기사의 제목.
- * 부제(副題) : 서적, 논문, 문예 작품 따위의 제목에 덧붙여 그것을 보충하는 제목.
- * 취지(趣旨) :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 * 절충(折衷) :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함.

06

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의 파악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4% ② 81% ③ 4% ④ 8% ⑤ 3%

• 왜 정답일까?

(나)의 본문 2문단의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메뉴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를 통해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만 제시되어 있을 뿐, 행사의 효과

부각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메모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왜 오답일까?

- ① (나)의 부제인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 실시돼'를 통해,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인다는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행사의 취지가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의 본문 3문단에서 현재 매월 1회인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으며, 그런 이유로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본문 2문단에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 선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가)에서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 선정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의 본문 1문단에서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에서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학생들이 기사 내용에 주목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7

조건에 따른 글의 내용의 수정·보완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4% ② 2% ③ 4% ④ 19% ⑤ 71%

• 왜 정답일까?

〈보기〉에서 학생 1은 기사문에 포함하기로 했던 내용 중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고, 학생 2는 글의 맥락에 맞게, 급식 메뉴 선정 과정에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해 수정·보완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 보완의 내용에 따라 ⑦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⑤에서는 학생들의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내용으로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일이 막연히 어렵다고 제시했을 뿐 무엇이 어려운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선정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과 학생 선호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그러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학교 급식의 단계와 관련한 내용은 글의 맥락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식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영양사 선생님의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급식 선정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작문 필수 개념

■ 조건에 맞는 글쓰기 해결 방법

- ① 형식적 조건, 즉 표현 기교나 진술 방식 중 어떤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선택지를 살펴본다.
- ② 내용적 조건, 즉 글에 제시된 중심 내용이나 글쓰기가 의도하는 내용 등 어떤 내용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선택지를 살펴본다.

[08~10] 작문

08

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5% ② 6% ③ 74% ④ 5% ⑤ 10%

• 왜 정답일까?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인 ㉠에서는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해한다고 하고 있다. 하

지만 학생의 초고인 (다)에서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원리와 한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③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 왜 오답일까?

- ① 일부 학생들이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을 고려해, 1문단에서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해한다는 ㉢을 고려해, 2문단에서 드론이 카메라나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있고 소형화, 경량화* 되고 있어 정보 수집에 용이하다는 드론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나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는 ㉣을 고려해, 3문단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의 의도적 악용 등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을 고려해, 4문단에서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지는 입장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설 어휘 풀이

* 경량화(輕量化): 물건을 가볍게 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등한시(等閑視): 소홀하게 보아 넘김.

09

자료 활용 전략 파악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6% ② 2% ③ 7% ④ 81% ⑤ 4%

• 왜 정답일까?

학생의 초고를 보면 ㉠의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 중 사전 규제 방식을 선택하고, 이와 관련하여 3문단에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의 의도적 악용 등 개인 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초고에서는 개인 정보 침해를 예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조하지는 않고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3문단에서 인명 구조, 시설물 점검 등의 공공 분야와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 민간 분야까지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을 토대로 2문단에서 드론이 소형화, 경량화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에 해당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5문단에서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시하며 개인의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을 참고하여 4문단에서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여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비판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글쓰기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4% ② 61% ③ 17% ④ 4% ⑤ 14%

• 왜 정답일까?

〈보기〉에서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같은 처벌을 들고 있다. 그리고 [A]에서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여 사후 규제 방식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쓴다면, 개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허용하되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으로 개인 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②의 내용이 적절하다.

• 왜 오답일까?

- ① 개인의 동의를 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사전 규제 방식에 해당하므로 〈보기〉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며, [A]와 유사한 입장에 해당한다.
- ③ 드론 활용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나 개인 정보 침해 종류에 따라 처벌하자

는 것은 〈보기〉를 근거로 [A]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④ 사전 규제 방식을 도입하되 규제를 완화하면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기〉에서 근거를 찾은 것도 아니며, [A]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도 없다.

⑤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을 절충하면서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보기〉를 근거로 [A]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현상의 이해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5% ② 72% ③ 6% ④ 10% ⑤ 7%

• 왜 정답일까?

제시문의 밑줄 친 ㉠은 용언의 어간 말음 'ㅎ' 뒤에 예사소리 'ㄱ, ㄷ, ㅌ'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과 'ㄱ, ㄷ, ㅌ'이 거센소리*, 즉 'ㅋ, ㅌ, ㅍ'으로 축약됨을 드러내고 있다. ②의 '놀기'는 어간 '놀-'의 말음 'ㅎ'과 어미 '-기'의 'ㄱ'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어 [노기]로 발음되므로 ㉠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한뼉'을 발음할 때, 종성에 있는 자음군*에서 자음 하나가 탈락하여 [한목]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하는 ㉡이 일어난다.
- ③ '끓지'는 용언 어간 '끓'의 말음 'ㅎ'과 뒤에 오는 어미 '-지'의 'ㄷ'이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어 [끓지]로 발음되므로 ㉠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 ④ '값할'은 '값'의 종성의 자음군에서 자음인 'ㅅ'이 탈락하여 [갑]으로 발음되므로 ㉡이 일어난다. 그런데 '바'와 'ㅎ'의 축약이 일어나 거센소리 'ㅍ'이 되어 [가팔]로 발음되지만,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ㅌ'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축약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 ⑤ '맞힌'은 용언의 어간 '맞-'의 말음 'ㅈ'과 어미 '히'의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이 되어 [마친]으로 발음되지만,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ㅌ'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축약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구개음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설 어휘 풀이

* 거센소리: 숨이 거세게 나오는 자음. 국어의 'ㄷ', 'ㄱ', 'ㅌ', 'ㅍ' 따위가 있다.

* 자음군(子音群): 초성이나 종성에 자음이 두 개 이상 무리 지어 나타나는 것.

★ 오답률 BEST 3

12

중세 국어 체언의 이해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37% ② 20% ③ 10% ④ 16% ⑤ 17%

• 왜 정답일까?

[A]의 내용을 볼 때, 체언 '하늘'은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체언 말음 'ㅎ'이 조사와 결합하면 연음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에서는 '하늘'에 조사 '이'가 붙어 '하늘이'로 연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의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을 볼 때, ㉡에서는 '하늘'의 말음인 'ㅎ'과 뒤에 오는 '도'의 'ㄷ'이 'ㅌ'으로 축약되어 '하늘토'가 되었으므로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② [A]를 통해 어떤 체언이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아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 구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하늘'은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ㅎ'이 실현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늘' 역시 'ㅎ'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하늘토'에서 'ㅌ'은 '하늘'의 말음인 'ㅎ'과 뒤에 오는 조사 '도'의 'ㄷ'이 축약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이를 통해 'ㅎ'의 존재를 알 수 있다.

④ '하늘'은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것으로,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⑤ [A]의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ㄱ, ㅌ'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을 통해, '하늘'에 조사 '도, 과'가 결합하면 'ㅎ'과 'ㄷ, ㄱ'이 축약되어 '하늘토, 하늘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 매력적인 오답 분석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제시된 글의 [A]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하늘'에 대해 분석한 선택지를 읽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기>에 제시된 '하늘' 역시 제시된 글의 '나룻'과 마찬가지로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각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을 제시된 글의 내용과 연관하여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가령 적절한 것인 ①의 경우, 제시된 글에 언급된 체언 말음 'ㅎ'이 조사와 결합하면 연음됨을 파악하여 '하늘히'가 '하늘'에 조사 '이'가 결합되어 연음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시된 글의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도'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ㄷ'과 축약되어 'ㅌ'으로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여, '하늘토' 역시 '하늘'에 조사 '도'가 결합하여 축약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①의 내용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문법 문제에서 지문이 주어질 경우, 지문만 정확히 이해하여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지문 내용과 일일이 대비하여 문제를 풀 수도 있음) 지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 오답인 ②, ④, ⑤를 많이 선택한 이유는?

이 문제의 경우 ②, ④, ⑤를 적절한 것으로 한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 역시 제시된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②의 경우에는 어떤 체언이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간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④, ⑤의 경우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ㄱ, ㅌ'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을 간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3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파악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8% ② 5% ③ 15% ④ 58% ⑤ 14%

• 왜 정답일까?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보기> [자료]의 밑줄 친 '물-물-', '-었-/-았-', '는/은'은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소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물-'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나타나고, '물-'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미 '-었-/-았-'은 어간 끝음절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조사 '는/은'은 결합하는 앞말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즉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소의 분류에 따라 '-었-/-았-', '는/은'은 실질적 의미 없이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고, '물-물-'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사는 단어에 포함되므로 '는/은'은 '물-물-', '-었-/-았-'과 달리 단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문법 필수 개념

* 형태소의 분류

①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뉜.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 형태소	반드시 다른 형태소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

② 의미의 유형에 따라 : 형태소가 가진 의미가 실질적인 개념을 나타내느냐 형식적인 관계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붙어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14 사전을 통한 어미의 쓰임 이해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10% ② 13% ③ 11% ④ 13% ⑤ 53%

• 왜 정답일까?

'흰 눈이 내립니다.'에서 '흰'의 '-ㄴ-'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하므로 '-ㄴ-' ②의 예문으로 추가해야 하므로 '-ㄴ-'이 아닌 '-ㄷ-' ⑤에 O으로 표시해야 한다.

• 왜 오답일까?

① '간다'를 보면 '-ㄴ-'은 종결 어미 '-다'의 앞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짚'의 '-ㄴ-'과 '유명한'의 '-ㄴ-'은 뒤에 다른 어미가 붙을 수 없다.
② '간다'는 '가신다'로, '짚'은 '짜신'으로, '유명한'은 '유명하신'으로 쓸 수 있다.
③ '짚'은 '웃'을 수식하고, '유명한'은 '성악가'를 수식하는 관형어 구실을 하고 있다.
④ '간다'와 '유명한'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짚'은 과거 시제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15 문장의 구조 이해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12% ② 7% ③ 23% ④ 10% ⑤ 48%

• 왜 정답일까?

㉔의 '성적이 많이 오르기'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건문장에 해당한다. 하지만 ㉔의 '장애를 달리기'는 명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㉔에서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건문장은 없다.

• 왜 오답일까?

①, ② ㉔에서 '그 사람이 범인임'은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고, '그'는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어에 해당한다.
③ ㉔에서 '부상을 당한'은 '선수'를 수식하는 관형절이고, '부상을 당한'에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④ ㉔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기'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건문장이고, '많이'는 '오르기'를 수식하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㉔의 안건문장 속에는 부사어가 없다.

16~21 인문·과학

한영호 외, '세종의 역법 제정과 '칠정산''

해제 이 글에서 조선의 역법 확립 과정을 세종 때 편찬한 책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관상수기'를 통해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소개하면서, 고려 시대의 역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 다음 조선 시대에 세종이 조선만의 교식 후보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로 '칠정산 내편'을 편찬할 수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종이 조선의 독자적 역법이라 할 수 있는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

기 위해 앞으로 일어날 교식을 미리 후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했고, 이후 새로운 계산법으로 이전에 있었던 교식을 후보하여 '교식 후보법 가령'이 편찬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칠정산 내편'에 언급된 영축차, 지질차에 대해 언급한 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이 공통적으로 '가감차 방식'을 사용했지만, 계산식이 약간 달라 후보 시각에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조선의 역법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게 하였고, 일본이 독자적인 역법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음을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조선의 역법 확립 과정

지문 어휘 풀이

- * 역법(曆法) : 천체의 주기적 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세시(歲時)를 정하는 방법.
- * 선명력(宣明曆) : 중국 당나라 장경(長慶) 2년(822)에 서양(徐昂)이 만든 태음력. 823년부터 71년간 사용하였는데, 1년을 365,244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렬왕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사용하였다.
- * 수시력(授時曆) : 중국 원나라의 천문학자 곽수경, 왕순(王恂) 등이 세조의 명(命)에 따라 만든 역서(曆書). 간의(簡儀)와 앙의(仰儀) 따위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농민에게 사시(四時), 팔절(八節)과 이십사절기 따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 * 동지(冬至) : 이십사절기의 하나.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에 들며 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인 12월 22일이나 23일 경이다. 북반구에서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 * 하지(夏至) : 이십사절기의 하나.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며, 양력 6월 21일경으로,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

문단 핵심 내용

- 1문단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 및 고려 시대의 역법
- 2문단 조선만의 교식 후보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 '칠정산 내편'을 편찬한 세종
- 3문단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편찬한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
- 4문단 지구와 태양, 달의 거리를 바탕으로 한 '영축차'와 '지질차'의 이해
- 5문단 후보 시각에 차이가 있었던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
- 6문단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을 확립한 조선의 역법

16 글의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21% ② 8% ③ 55% ④ 4% ⑤ 12%

• 왜 정답일까?

이 글의 1문단에서는 「서경(書經)」의 '관상수시-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라는 말을 활용해 유교 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즉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 주고 있다. 그리고 2~3문단을 통해 세종이 조선만의 교식 후보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로 '칠정산 내편'과 이의 효용을 살피기 위해 앞으로 일어날 교식을 미리 후보한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 새로운 계산법으로 이전에 있었던 교식을 후보하여 '교식 후보법 가령'이 편찬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조선이 이러한 유교적 관점에 따라 역법을 확립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6문단에서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해 역법을 확립한 조선의 역법이 일본의 역법 확립에 미친 영향을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이 글에서 '관상수시'의 뜻을 소개하고 있지만, 고려와 조선

에서 '관상수시'를 어떻게 변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② 이 글을 통해 조선의 역법 발달 과정을 알 수 있지만,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천문과 역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④ 이 글을 통해 조선의 교식 추보가 중국 천문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글의 3문단을 통해 교식 추보 방법에 있어 조선이 당시 유럽 천문학보다 우수했음을 알 수 있지만, 당대에 관측한 값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증하지는 않고 있다.

17

내용의 이해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71% ② 15% ③ 6% ④ 5% ⑤ 3%

• 왜 정답일까?

1문단을 통해 '관상수시'는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이었고, 조선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법인 선명력과 수시력을 도입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을 통해 세종이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조선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이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정치 이념을 실현했다는 내용은 적절한 이해라 할 수 없다.

• 왜 오답일까?

② 2문단을 통해 '칠정산'이 교식 추보에 필요한 태양과 달의 운동뿐 아니라, 다섯 행성의 운동도 계산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조선에서는 교식 추보 외에 여러 행성들의 운동도 역법에 담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의 '역법의 운용과 역서의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었고 그곳의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되었다.'를 통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역법의 운용과 역서 발행을 중요한 국가 통치 행위로 여겨 국가 주도로 역법의 연구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의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월일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를 통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천체의 변화를 이해하여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6문단의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8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6% ② 58% ③ 12% ④ 17% ⑤ 7%

• 왜 정답일까?

〈보기〉의 (가)에서는 이전에는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지만, 수시력법을 연구한 뒤로는 역시 만드는 법이 어느 정도 바로 잡혔다. 자부했다가, 이번(세종 12년) 일식의 시작과 끝 시각이 모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2문단과 관련 지어 추리하면, 세종은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다가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고, 이러한 연구한 결과로 '칠정산 내편'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한 것이 아니라 '칠정산 내편'을 편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편찬되었음을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가)에서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다고 했는데, 이를 1문단과 관련 지어 추리하면 조선에서 교식을 추보할 때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로 보아 '북극출지의 고하'를 정하기 위해 '간익'을 '나무'로 만들었다가 '구리'를 녹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2문단과 관련 지어 추리하면 교식 추보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천체 관측 기구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로 보아 '칠정산 내편'을 편찬하는 데, 수시력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수시력은 중국의 역법이다.

⑤ (다)의 발문을 쓴 '이순지'는 '주야각은 각기 근거한 곳에서 추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과 조선의 입성이 달랐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BEST 1

19

글의 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17% ② 19% ③ 29% ④ 25% ⑤ 10%

• 왜 정답일까?

〈보기〉는 정묘년(1447년) 8월 교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므로 축이며 태양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가 더 앞선다. 그러므로 축차이며 음의 값이다. 달이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했으므로 역시 달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달의 위치가 더 앞선다. 그러므로 지차이며 음의 값이다. 〈보기〉에 의하면 정묘년 8월 경삭에서 영축차 값과 지질차 값 모두 음의 값이므로 가감차 값은 양의 값이 된다. 따라서 정삭을 추보할 때 가감차 값을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 왜 오답일까?

① 달이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했으므로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달의 위치보다 뒤쳐져 있었을 것이다.

② 가감차 값에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속도상 값에는 두 가령이 차이가 있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를, '교식 추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그러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고, 가감차 값은 '교식 추보법' 가령이 더 컸을 것이다.

④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므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축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⑤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을 때는 정삭이 아니라 정망이다.

★ 매력적인 오답 분석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상황과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연관시키지 못하여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이나 선택지에 제시된 가감차 값, 정삭 추보, 영차 등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도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문제 해결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기〉에 제시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즉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이라는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와 연관된 글의 내용(4, 5문단)을 찾아서 선택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글이나 선택지에 제시된 주요 용어 - 가감차 값, 정삭 추보, 영차 등 - 에 대해서도 글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면,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므로 '축'이며, 태양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가 더 앞서므로 축차이며 음의 값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달이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달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달의 위치가 더 앞서고 있어서 지차이며 음의 값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보기〉의 정묘년 8월 경삭에서 영축차 값과 지질차 값 모두 음의 값에 해당하여 가감차 값은 양의 값이 되므로 정삭을 추보할 때 가감차 값을 가차로 삼았다는 ③은 적절한 것이다. 한편 오답인 ④의 경우에도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임을 파악하였다면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영차가 아닌 축차를 사용했을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20

구절의 세부적 의미 이해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17% ② 11% ③ 56% ④ 8% ⑤ 8%

• 왜 정답일까?

4문단을 통해, 지질차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세종은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교식 추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양에서의 주야각 입성을 추보하려 했다.

② 북반구에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관측되므로,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지차'는 양의 값을, '지차'는 음의 값을 가진다.

⑤ 달이 태양보다 같은 방향으로 더 빨리 이동하므로 '교식 추보법 가령'의 속도상 값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다.

21

단어의 사전적 의미 이해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21% ② 67% ③ 4% ④ 5% ⑤ 3%

• 왜 정답일까?

① '통달'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따위를 훤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함.'의 뜻을 지닌다. ②에 제시된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은 '통찰'의 사전적 의미이다.

22~26

사회

박승룡, '주식회사법'

해제 이 글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인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과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주식회사가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 되었다고 하면서, 주식회사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을 본질적 요소로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되며,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이고,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유한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유한책임을 진다고 유한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때때로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기도 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즉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강행법으로 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주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인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과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원칙

지문 어휘 풀이

- * 전형(典型) :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
- * 주식(株式) :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 * 조달(調達) : 자금이나 물자 따위를 대어 줌.
- * 남용(濫用) :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 * 출자(出資) : 자금을 내는 일.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른다.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 -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과 관련된 원칙.
2문단	주식회사의 자본금
3문단	주식회사의 주식

4문단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5문단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기도 하는 주식회사
6문단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

22

글의 내용의 세부적 이해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4% ② 9% ③ 12% ④ 64% ⑤ 11%

• 왜 정답일까?

4문단의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는 내용을 통해, 주식회사가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 3문단의 '1주의 액면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4문단의 '유한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4문단의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한 유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6문단의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을 통해 알 수 있다.

★ 오답률 BEST 4

23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9% ② 20% ③ 39% ④ 23% ⑤ 9%

• 왜 정답일까?

2문단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기>의 정관을 보면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인 5천 주만을 발행하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이 5천 주에 대한 출자자만 확정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 <보기>의 정관을 보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만 주이므로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다. 주식 1주의 금액이 5천 원이므로,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임을 알 수 있다.
- 2문단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갑이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1주는 5천 원이며, 발행한 주식의 수는 5천 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라 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수권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의 미발행주식 5천 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매력적인 오답 분석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보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선택지의 내용을 주어진 글의 내용과 정확히 연관하지 못하여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문제 해결 방법은?

<보기> 문제의 경우 많은 문제가 지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 역시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였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가령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③의 경우, 지문 2문단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만 정확히 파악했으면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이 5천 주에 대한 출자자만 확정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잘못된 이해였음을 알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높았던 ②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2문단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오답률이 높은 ④의 경우에도 3문단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는 내용을 파악하였으면 적절함을 알았을 것이다. 이처럼 <보기> 문제라 하더라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므로, 제시된 선택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내용을 글에서 찾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

핵심 개념의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7% ② 9% ③ 22% ④ 19% ⑤ 43%

• 왜 정답일까?

<보기>를 통해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을 5천 원으로 하는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으므로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임을 알 수 있고, B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25억 원,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15억 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 회사는 5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B 회사에 출자하였고 B 회사는 25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C 회사에 출자하였으며, C 회사는 15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A 회사에 출자하였다. 이렇게 볼 때, A 회사의 자본금 50억 원이 반복 출자되어 부풀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B, C 세 회사에 실제로 투자된 자본금의 총합과 서류상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③

답지 선택률 ① 5% ② 7% ③ 60% ④ 10% ⑤ 18%

• 왜 정답일까?

5문단의 내용을 통해 ㉠이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자본금의 감소에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은 주식회사가 초래하는 경제적 폐해, 즉 채권자를 비롯한 주식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한다. ㉠의 목적이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지는 않다.
- ② ㉡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④ ㉠, ㉡이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 ⑤ ㉠, ㉡은 자본금에 관한 원칙이다. ㉠은 주식회사 간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6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6% ② 2% ③ 2% ④ 88% ⑤ 2%

• 왜 정답일까?

③은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의미로, ④의 '과정'을 거쳐서 '거쳐서'가 이와 유사한 문맥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②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③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⑤ 마음에 거리끼거나 꺼리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7~29

현대 소설

이청준, 「황홀한 실종」

감상 '이 작품은 1970년대 한국 사회를 우의적 기법으로 빚대어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에서 여러 번 탈락한 후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동물원의 쇠물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자기 스스로를 유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윤일섭의 정신병적 증상은 기성의 체제와 질서에 편입되어 살아가면서 그로부터 탈락하거나 낙오되지 않기 위해 순응하는 모습과 더불어 이면에 추방과 낙오의 불안이 겹쳐져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안정과 평화를 갈망하는 개인의 모습과 이를 억압하고 저지하려는 사회 현실

작품 줄거리 30대 평범한 은행원 윤일섭은 대리 승진을 앞두고 몇 번이나 탈락하면서 정신 분열 증세를 보이게 되고 주변인들의 권유로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를 찾아오게 된다. 윤일섭은 혼란과 격동의 70년대 학창 시절 시위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행동이 교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는 이러한 윤일섭의 잘못된 의식과 기억은 안으로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상 밖으로의 지향에 대한 도착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은행원 윤일섭도 은행원 바깥으로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윤일섭 치료하려 한다. 하지만 대학 시절을 학생 시위로 어수선하게 보낸 윤일섭은 사실 은행에 취직하면서 안도감과 안정을 얻게 되지만 이후 대리 승진에서 연달아 탈락하게 되면서 은행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자세한 사실을 모른 채 손 박사는 윤일섭을 자신의 방식으로 치료하려고 하고 치료 도중 윤일섭은 실종되고 실종 후 찾아온 직장의 동료들은 윤일섭이 문 안쪽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손 박사가 윤일섭의 내면의 솔직한 욕망을 외면한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갑자기 사라진 윤일섭은 결국 동물원에서 사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된다.

작품 어휘 풀이

- * 시위(示威) :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
- * 도착(도착) : 본능이나 감성 또는 덕성의 이상(異常)으로 사회나 도덕에 어그러진 행동을 나타냄.
- * 전도(顛倒) : 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들.
- * 포진(布陣) : 전쟁이나 경기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진을 침.
- * 꿰뚫 : 남을 꿰어 속여 넘기는 수단.

27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11% ② 17% ③ 5% ④ 4% ⑤ 63%

• 왜 정답일까?

[A]에서는 작품 밖에 위치한 전지적인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인 윤일섭의 시선을 중심으로, 다른 인물인 손 박사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③ 작품 밖의 전지적인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장면이 변화하고 있지만 작품 밖에 위치한 전지적 서술자는 교체되지 않고 있다.

② 서술자가 전지적인 입장에서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낸 부분도 찾아볼 수 없고, 윤일섭이 손 박사에 대해 불신하고 있지만 윤일섭과 손 박사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2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⑤

답지 선택률 ① 7% ② 10% ③ 9% ④ 8% ⑤ 66%

• 왜 정답일까?

[A]를 통해 윤일섭이 '쇠물타리'를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 생각하면서, 손 박사 역시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의 하나라고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생각은 손 박사의 생각이 아니라 윤일섭의 생각에 해당하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일까?

① 손 박사는 윤일섭이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종락 줄거리'에 언급되어 있듯이 그 혼란이 쇠물타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손 박사는 '마음속의 쇠물타리'를 부식 없애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② 손 박사는 윤일섭의 교문에 대한 의심의 도착 증세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 속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고 보고, 그러한 증세가 모두 '쇠물타리'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손 박사는 ①과 같은 처방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③ 윤일섭은 손 박사가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를 가지고 자신을 '쇠물타리' 밖으로 내몰기 위해 ①과 같은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④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의 쇠물타리를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피어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8% ② 5% ③ 12% ④ 70% ⑤ 5%

• 왜 정답일까?

[A]를 통해 윤일섭은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 즉 쇠물타리 밖에 있는 존재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윤일섭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또한 자신을 과거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윤일섭'은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윤일섭은 '승진'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고 살아왔는데, 이것은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자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③ 윤일섭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향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마음속에는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윤일섭은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가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은행 안에서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자본주의적 질서를 상징한다.

30~33

기술

정영근, 'OTP 인증 기술 최신 동향 및 발전 방향'

해제 이 글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OTP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뉘는데, 비동기화 방식은 인증 서버의 질의를 받으면 사용자가 OTP발생기에 질의값을 입력하고 그를 통해 얻은 응답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함으로써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정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동기화 방식은 OTP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촉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며 시간 동기화 방식은 기촉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한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OTP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에 카운트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 제약이 있어 사용자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주제 OTP 기술의 이해 및 종류

지문 어휘 풀이

* 인증(認證):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

* 서버(server): 주된 정보의 제공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서버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요청한 작업이나 정보의 수행 결과를 돌려준다.

* 함수(函數): 두 개의 변수 x, y 사이에서, x 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값이 변하는 데 따라서 y 의 값이 종속적으로 정해질 때, x 에 대하여 y 를 이르는 말. y 가 x 의 함수라는 것은 $y=f(x)$ 로 표시한다.

* 역연산(逆演算): 계산을 한 결과를, 계산을 하기 전의 수 또는 식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계산. 뺄셈은 덧셈의 역산, 나눗셈은 곱셈의 역산이다.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법인 OTP 기술

2문단 OTP 기술의 종류 - 비동기화 방식

3문단 OTP 기술의 종류 - 동기화 방식

4문단 동기화 방식인 시간 동기화 방식

5문단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

6문단 시간 동기화 방식의 한계

30

글 내용의 세부적 이해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47% ② 25% ③ 10% ④ 9% ⑤ 9%

• 왜 정답일까?

6문단의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 내용을 통해,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② 2문단의 '비동기화 방식은 OTP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라는 내용과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발생기에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를 통해, 비동기화 방식인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의 질의에 대해 OTP발생기가 생성한 응답값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의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인증받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6문단의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를 통해,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을 통해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가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에 입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TP발생기에 입력한 임의의 6자리 수는 응답값과 일치할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31

구체적 상황의 적용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49% ② 12% ③ 16% ④ 13% ⑤ 10%

• 왜 정답일까?

4문단의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촉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를 통해, ⑤에서 생성한 인증값이라고 한 이해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일까?

② 6문단에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인증 서버와 OTP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촉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OTP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④ 3문단의 '이 방식은 OTP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에 카운트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를 통해 적절한 이해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인증 서버 역시 기촉값과 카운트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발생기의 비밀번호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를 통해 적절한 이해임을 알 수 있다.

★ 고득점 BEST 5

32

글의 내용의 추론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41% ② 26% ③ 15% ④ 11% ⑤ 7%

• 왜 정답일까?

3문단을 통해,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OTP발생기의 기촉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OTP발생기가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카운트값을 달리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새롭게 생성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② 인증 서버는 인증에 성공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값을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③ 인증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기촉값을 동기화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인증에 실패한다고 하여도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2문단에서 질의값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아니라 질의 응답 방식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매력적인 오답 분석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주어진 내용의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인데, 선택지의 내용이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문제처럼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는 해당 내용의 전후 문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즉 ②의 전후 내용을 살펴서 ②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OTP 발생기의 기촉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일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

리·얼·오·리·지·널 REAL ORIGINAL

리얼 오리지널 시리즈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435만권을 판매한 「수능기출 베스트셀러」입니다.

고3 | 전국연합 3개년 모의고사 [국어]

① 2021 수능대비 & 전국연합 학력평가 대비

최근 3개년 동안 시행된 '수능 + 모의평가 + 전국연합'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2021 수능시험과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학습의 기본은 기출 문제를 풀어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시험과 똑같은 문제지와 OMR 카드를 통해 실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③ 별권 부록 [문법 총정리+문제] 핸드북 제공

국어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총정리]와 [끝내기 문제]를 통해
2021 수능시험과 내신대비 학습까지 가능합니다.



정가 13,000원

리얼 오리지널 고3 전국연합 3개년 모의고사 [국어]

발행처 입시플라이 등록 번호 제 2017-22호 발행일 2019년 11월 30일(제 1쇄)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15 정민빌딩 3층
대표 전화 1566-9939 팩스 02-433-9905 내용 문의 02-433-9979 구입 문의 02-433-9975 홈페이지 www.ipsifly.com

※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과 편집 형태에 대한 저작권은 입시플라이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복사·복제를 일절 금합니다.

※ 페이지가 누락되었거나 파손된 교재는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출간 이후 발견되는 오류는 홈페이지 정오표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